

직업계고 충원을 뚫…학과 개편 속도

교육부 “신산업 육성 위해 재구조화”
전국 101곳 148개 학과 개편 지원
취업률도 갈수록 떨어져 불가피

교육부가 전국 직업계고등학교(특성학교·마이스터고) 101곳의 148개 학과를 개편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장,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이 출현하고 유망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했다. 교육부의 설명이다.

앞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개별 학교들로부터 개편 신청을 받아서, 예산 지원 타당성을 살폈다. 전국 직업계고등학교는 583곳으로, 2261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125개, 2020년에는 153개 학과 개편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48개 학과를 개편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 학과당 평균 4억1500만원씩을 지원해 모두 6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국 학교 중 101곳이 개편 지원 대상이고, 지

역별로는 서울 21곳, 경기 21곳, 인천 2곳 등 수도권에서 44곳이 지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10곳, 대구 8곳, 전남 8곳, 충남 6곳, 광주 5곳, 부산·경남·대전 각 4곳, 전북 3곳, 충북 2곳, 강원·세종·울산 1곳 등이 선정됐다.

교육당국이 이처럼 과감한 학과 개편을 단행한 이유는 최근 입학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직업계고가 많아지면서 취업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변화의 필요성이 촉구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와 전남 지역도 비슷한 상황으로 광주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률은 2018년 91%에서 2019년 88%, 2020년 90%로 떨어졌다. 직업계고 45곳이 있는 전남 역시 2019학년도 85.1%, 2020학년도 82.9%, 2021학년도 86.4%를 나타냈다.

여기엔 학령인구 감소 추세뿐 아니라 직업계고의 핵심 경쟁력인 취업률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공개한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로를 보면, 전체 8만9998명 가운데 45%인 4만770명은 진학 3만8215명, 입대 1585명, 장애인이나 장기입원자 같은 제외 인정자 970명으로 분류돼 비취업의 길

로 갔다. 나머지에서 취업률을 보면, 4만9998명 중 2만4938명으로 50.7%에 그친다. 특히 2019년부터는 직업계고에서 진학자가 취업자보다 많아져 분말이 전도된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올해는 전통학과로 분류되는 기계 분야(32개), 전기·전자 분야(25개)의 학과 개편이 가장 많이 선정됐다. 디자인·문화·콘텐츠 분야(17개), 농림·수산·해양 분야(14개)가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특히 인공지능, 미래 자동차, 바이오 관련 분야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초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개편이 다수 선정돼, 미래 유망 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정된 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의 학과 개편 승인 절차를 거쳐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교육의 핵심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길러내는 데 있다”며 “교육부는 신산업·유망산업 분야와 연계한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해 기초 기술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 전남교육 지역상생카드 출시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개발한 전남교육 지역상생카드가 공식 출시했다.

도교육청은 2일 교육감실에서 장석웅 교육감과 이창기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 이몽호 광주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사진)를 열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전남교육 지역상생카드 출시를 알렸다.

행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자문단 윤용식 단장, 전남소상공인연합회 이갑주 회장도 참석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전남교육 지역상생카드 출시를 축하했다.

전남교육 지역상생카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업체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전남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신규 카드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역 소상공인업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AI-SW 창의융합 코딩교육 조선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인공지능(AI) 인재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2021 AI-SW 창의융합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진행된 AI-SW 창의융합 코딩교육은 조선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북구청과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해당 사업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해 2년째 진행 중이다.

〈조선대 제공〉

광주대, 이모빌리티 부품개발 전문가 양성 13일까지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에너지 절약 이모빌리티(e-mobility) 부품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광주대 미래자동차공학과는 오는 13일까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사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차세대 설계 생산 교육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8월1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재학생과 지역 청년 등이 대상이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ekfawnl0918@mokpo.

ac.kr) 접수와 광주대 인성관 104호실 현장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참가 자격은 지역 청년 가운데 취·창업 희망자이며, 과제책임자 및 소속 교원 내부 평가 후 최종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 활동 후에는 평가에 따라 대상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며, 지정 기간 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추가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2-670-2274) 문의 또는 광주대 미래자동차공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광주전남지역플랫폼 광주대학교 사업단

미래형운송기기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미래자동차공학과는 2022학년도 AI자동차학과로 학과명을 변경, 인공지능 퍼스널 모빌리티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역량을 갖춘 실무중심형 전문 인재 양성과 AI 융합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친환경 IT-융합 스마트 그린카, 자율주행, 스마트 안전 자동차 기술 습득 등 미래형 자동차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취업역량을 높여갈 방침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목포대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 선정

5년간 사업비 60억원 투입

목포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 구축·운영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향후 5년간 국비를 비롯해 참여기관(전남도, 무안군, 나주시)의 예산을 포함해 총사업비 약 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 창업 촉진, 메이커 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양산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와 공구 등을 갖춘 제조 창업 지

원 공간이다.

목포대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은 최근 완공한 목포대 남악캠퍼스 생산형창업지원관에 조성된다. 생산형 창업지원관에는 창업기업 제품 전시·홍보·체험을 위한 홍보관, 초도 생산을 위한 제조 장비가 구축된 파일럿플랜트, 시제품 개발 및 제작을 위한 특화 4랩, 전문 메이커 양성을 위한 스마트 교육실, 창업기업 제품을 홍보·방송하는 커머스 스튜디오, 지원 운영사무실 등이 구축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메이커 스페이스 일반랩은 남악주 민센터에서 지속된다.

/채희종 기자 chae@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